

장일범의 클래식 세상만사



상주아티스트 제도

올해 봄 고양아랍누리는 극장의 상주단체로 체임버 오케스트라인 세종솔로이스츠를 선정, 발표했다.

사실 통영국제음악제다. 그동안 작곡가 진은숙, 하이너 괴벨스 등과 함께했고 진은숙은 서울시향의 레지던스 작곡가를 역임하기도 했다.

올해 시즌 해외에서의 상주 음악가들을 살펴보면 영국 위그모어 홀은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사우스뱅크 센터에서는 여성지휘자 마린 알솜이 활약 중이며 베를린필은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는 고음악 지휘자이자 첼발로 주자인 톤 쿠프만,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피아니스트 엠마누엘 엑스,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는 바이올리니스트 리사 바티아슈빌리를 선정해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알차게 진행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상주 연주자나 작곡가 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베를린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피아니스트 랑랑, 미츠코 우치다, 레이프 오베안즈네스,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 등도 이 프로그램을 거쳤다. 한 무대에서 일년동안 독주,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실내악 공연에 이르기까지 연주자 한 명이 자신의 음악적 경험과 역량을 더욱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진다.

한국의 공연장으로서는 금호아트홀에 이어 고양아랍누리가 두 번째로 상주단체를 선정할 셈인데 앞으로 운영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에 따라 한국의 공연장으로도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본다. 서울 금호아트홀의 올해 상주 아티스트는 피아니스트 김다솔, 금호아트홀이 처음 실시한 제도의 수혜자다.

이미 1월에 금호아트홀 신년음악회에서 독주회를 열었고, 세계질에 걸쳐 청중은 네 번의 독주회와 두 번의 실내악 앙상블을 통해서 바흐에서부터 거슈인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만나볼 수 있다. 상주 아티스트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실시한 단체는

연주자들에게는 여러 사정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다양한 장르의 음악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며, 청중들에게는 1년 동안 상주 연주자의 프로그램을 따라다니면서 팬이 되고 한 아티스트에 대해서 깊이있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다.

물론 해당 아티스트의 베를린에서의 체류 기간 동안의 체제비나 연주비가 제공되기 때문에 아티스트들로서는 정말 바쁜 일정 때문에 평소엔 하기 힘들었던 음악공부에 다시 전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베를린 필 레지던스 아티스트'라는 자랑스런 레테르를 평생 간직할 수 있기도 하다.

상주 연주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베를린 필과는 달리 다양한 국제적 오케스트라와 현대음악 공연을 중시하는 스위스 투체른 페스티벌에서는 전통적으로 상주 작곡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조지 브리튼이 신작을 위촉받고 오보이스트 하인츠 홀리거와 말러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신작을 연주하는 식이다.

올해 8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펼쳐지며 '혁명'(Revolution)을 주제로 삼고 있는 2013년 투체른 페스티벌에는 이스라엘 출신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여

성 작곡가 차야 체르노빈이 상주 작곡가로 선정됐다. 그녀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에 대해 작곡하고 싶다."라면서 이번 상주 작곡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창작의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오디오 레코딩과 전자음악을 라이브 연주에 반영하면서 유럽 주류 창작음악계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그의 작품이 이번 여름 또 어떤 놀라운 창작품을 선보이게 될지 기대된다. 또한 레지던스 쿼텟(현악 4중주단)으로 잭 퀴렛(Jack)을 임명해 페스티벌 기간 내내 새로운 음악 창조의 산실과 공방으로 연주를 맡겼다.

이처럼 상주 음악가나 상주 작곡가 제도는 새로운 아티스트나 음악을 청중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할 수 있고 뛰어난 예술성을 갖춘 아티스트를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금호아트홀이나 서울시향, 고양아랍누리, 통영국제음악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주 아티스트 제도가 앞으로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연주자와 청중이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음악평론가·KBS 클래식FM '장일범의 가정음악 MC'>

社說

불법 중국어선 단속, 몸으로 막아야 하나

1일자로 서·남해안 바다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들의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긴장감이 일고 있다. 황금 해역인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탐내는 무허가 중국 어선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중경상을 입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사전에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 1658척 중 유자망 673척에 대해 우리 측 구역에서 조업이 허용되며, 올해 말까지 허가된 어획량은 7672t에 달한다. 하지만 무허가 중국 어선이 30만 척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쇄돔·도개 등 흥기로 무장한 채 선박에 최강살을 쫓는 등 저항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우리 측 해경과 단속반원의 인명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 마련 등 부산을 떨었지만 대부분 미봉책이 그쳤다. 2011년 이 경사 괴살직육, 단속 합정이나 장비, 인력 등을 대폭 강화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종합 대책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12월12일 인천 해경 소속 이광호 경사가 단속 중 중국 선원들의 흉기에 찔려 숨졌으며, 2008년 9월에는 목포해경의 박경호 경위가 목숨을 잃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도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단속반원 3명이

서해어업관리단의 경우 단속 인원 30명 추가 확보, 어업지도선 4척 확충 등의 대책이 마련됐으나 인력은 14명으로 축소됐고, 지도선 증강도 1척이 전부다. 오히려 방기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정부는 당장 단속 인력 확보와 지도선 확충 등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총기 사용도 허용해야 한다. 우리 단속대원들이 언제까지 생명을 담보로 단속에 나설 수는 없는 일이다. 중국 정부 역시 불법조업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련시설 불신 확산 안전대책이 답이다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사고 이후 지역 청소년 수련시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고 한다. 안전문제를 우려한 있던 예약 취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차체에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증을 받은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만 허가하기로 해 머지않아 이 지역 수련시설들의 인증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 학자는 민주주의는 한 사회 시민들의 상식의 척도라고 했다. 우리들 각자가 상식을 지키고 상식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 사회에는 억울한 일은 없게 될 것이다. 선진국이란 경제적 부가 척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 보도매체에서 중산층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선진국은 중산층이 책을 읽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정도라고 했지만 한국은 경제적 여유가 얼마인가를 척도로 대답했다고 한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경제는 삶을 편리하게 하는 매개체인데 이것이 중산층의 척도라면 우리는 너무 편리함만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편리만 추구하다 보면 남을 무시하는 상식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이것이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인증이 곧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 인증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활동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활동기록관리 등 4가지 항목을 심사해 수련프로그램을 인증할 뿐 시설 자체를 인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증만을 위한 안전대책을 세워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허나, 대부분 규모가 작아 교육부나 인종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보니 태안사고의 불통이 튀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에 완도에 있는 전남청소년수련원과 같은 인증시설은 오히려 안전에 대한 믿을 때문에 예약이 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당정이 공식

청소수련시설이 최우선시해야 할 것은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이다. 이번 기회에 총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재점검과 보완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

교육당국과 지자체도 지역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꼼꼼하게 진행해야 한다. 현재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필수 요건이다. 또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말고 안전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無等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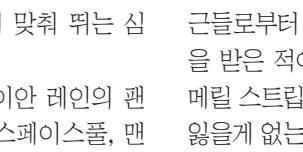
1984년, 고등학교 2학년때의 일이다. 광주 현대극장에서 영화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가 상영됐다. 이 영화는 불량배들에게 애인을 납치당한 청년이 단신으로 불량배들과 대결한다는 다소 뻔한 스토리였다. 하지만 강력한 특근물에 오토바이의 굉음, 여배우의 허스키한 보이스와 색시한 몸놀림이란 흥행 3요소를 갖춰 인기를 끌었다.

의 스타로 남아있다. 다이안 레인이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을 다루는 NBC방송의 미니시리즈 주인공으로 발탁돼 화제를 낳고 있다. 힐러리는 차기 미국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다. 미국은 요즘 다이안 레인의 색시한 이미지가 힐러리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빅타운, 나이트게임, 워크 온 더 문

국내 영화사상 최초로 극장에 나이트클럽의 특수 조명장치를 설치한다는 점도 관심사였다. 광주극장에는 이런 특수 조명장치가 없었지만 당시 10대들의 우상이었던 여배우 다이안 레인을 보려는 인파로 연일 만원을 이뤘다. 주인공 다이안 레인이 강력한 비트의 주제곡 'nowhere fast'를 부를때는 비트에 맞춰 뛰는 심장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이 영화를 계기로 다이안 레인의 팬이 됐다. 코튼 클럽, 언스페이스폴, 맨 오브 스틸 등 그녀의 이후 영화에서는 비록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 만큼의 강렬함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추억이 된다.

등에서 과감한 노출을 기로 고취적이고 색시한 이미지를 구축한 다이안 레인과 대통령 부인이 되지만 다소 촌스러운 머리 모양과 화장법으로 화제를 낳은 힐러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힐러리와 다이안레인



메릴 스트립은 2011년 영화 '철의 여인'에 서 마가릿 대처를 연기했다가 대처의 측근들로부터 이미지를 왜곡했다며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비난에도 불구하고 메릴 스트립은 배우로서 이력을 쌓았다. 잃을게 없는 배우와 이미지가 중요한 정치인. 힐러리에 대해 더해진 색시한 이미지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궁금해진다. /장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에서 마가릿 대처를 연기했다가 대처의 측근들로부터 이미지를 왜곡했다며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비난에도 불구하고 메릴 스트립은 배우로서 이력을 쌓았다. 잃을게 없는 배우와 이미지가 중요한 정치인. 힐러리에 대해 더해진 색시한 이미지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궁금해진다. /장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종교칼럼



종서 화엄사 수도암 주지

교통신호 지키기와 상식이 통하는 민주주의

해져 있고, 우리들은 이 법규를 지키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운전을 하면서 상식적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모두가 서로 사고를 당하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서로 상식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문제다.

늘까? 민주주의란 우리를 국민 개개인이 권리의 주체라는 것이다. 이 권리에겐 의무가 따른다. 의무 없는 권리나 힘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상식이다.

교통 법규를 교통 신호나 도로상에서의 상식의 문제로 국한한다면 도로상에서의 문제일 뿐 구태여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은 상식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기 자신만 빨리 가고, 자기 자신만 편하면 다른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외국인 학교의 문제를 사례로 보자. 매체에서 일부의 특정인을 위해 그 학교에서 광범위한 성적 조작의 증거가 있다고 보도했다. 상식적으로 일부 특정인의 자녀를 그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하면서 다수의 학생이 불합격이라는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상식적으로 안 되는 특정인의 입학 편리를 위해 다수의 사람이나 학생은 무시했다는 말이다.

누구나 모두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사람은 상식적으로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데 어느 한 사람만 또는 몇몇이 지키지 않으면 대다수의 착한 시민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나만 편하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이것은 부정이라고 말한다. 부정이란 상식을 지키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없애고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의 실력에 맞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또 민주주의라는 사회질서를 위해 우리는 광주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항거하지 않았는가? 민주주의는 유리병의 뚜이 아니라 우리가 겪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교통신호나 "상식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라는 그런 말을 듣는데, 이런 말이 자주 쓰이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위험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

기고

호남인이 교활하다고?



박정필 시인

란과 국민 분열을 부추겨 국가 장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BC 5세기경 그리스에는 퀘변가들이 많았다고 한다. 서양 철학의 시조 소크라테스는 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퀘변가들에게 문답형식으로써 그들의 학문에 대한 무지함을 깨우쳐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해 주었다고 전한다. 하지만 우리 현실과는 판이하다.

그가 노망에 부린 것 같다. 또 이름 석 자 뒤에는 박사라는 호칭이 무색할 정도다. 그의 글 가운데서 몇 구절 발췌했다. 진짜 망언 수준이다. "이 ×××들 온 세상에 오물은, 다 배설해 놓았다" "뒤통수 치는, ×××들" "전라도 것을 사귀면 잘해야 본전, 절대로 사돈 맺지 마" "경찰 검찰 법원을 거의가 전라도 인간들이다" 등 누가 보아도 유치하고 낯뜨뜨러운 글이다. 만일 정상적인 사람이 썼다면 호남인들은 역장이 무너지고 기막혀 통곡할 일이다. 또한 그는 이조 개국공신 정도전의 八道人 四字評(팔도인 사자평·정도 때 규장각학사 윤행임 諱이란 一說도 있음) 중 "전라도 사람을 風前細柳(풍전세류)"라고 한 것을 그는 교묘히 왜곡 비하시켰다. "시류에 따라, 여기저기 불어 처세를 잘하고 교활하다"고 자의적 해석을 내놓았다.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지 않겠는가. 제대로 알

필자는 우리 사회에 퀘변가로 널리 알려진 지만일(72)씨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그가 최근 특검단체와 지역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고, 또 지인을 통해 그가 극우논객으로서 지식인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온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지난 6월 어느 날 인터넷상에서 우연히 지 씨가 올린 글을 보고 깨머리치게 놀랐다. "세상에 이런 글도 있었네."하며 내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그는 "전라도 ×××들아, 빨갱이 곱사춤을 그만 추어라." <2013년 6월 23일 게재> 제목의 글은 도저히 양식 있는 학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호기심이 발동돼 또 다른 몇 편의 글도 들춰보았으나 마찬가지로였다. 얼마나 논리가 공했으면 막말과 온갖 욕설로 배설했을까. 세간의 시정잡매도 이렇지는 않았으며, 아마

이렇게 나만 편하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이것은 부정이라고 말한다. 부정이란 상식을 지키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없애고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의 실력에 맞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또 민주주의라는 사회질서를 위해 우리는 광주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항거하지 않았는가? 민주주의는 유리병의 뚜이 아니라 우리가 겪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기1업간.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편집부 2200-649, 여문예부 2200-621, 정치부 2200-612, 체육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사회부 2200-616, 사진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지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